

월간 해양기상정보

2021년 2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2021년 2월 1일

해양기상정보

- 해상특성(최근 5년간('16~'20년) 2월)
 - 2월 상순에 동해·제주도·서해남부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음. 남해·서해중부 먼바다와 동해중부·제주도 앞바다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 중순에 동해·서해남부·남해서부·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음. 그 밖의 먼바다와 동해중부·제주도 앞바다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다른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 하순에 동해남부·제주도 먼바다에서 파고가 높았음. 그 외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앞바다 전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 ※ 유의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풍량특보일 수(최근 5년간('16~'20년) 2월)
 - 8.7일(상순 3.5일 / 중순 3.6일 / 하순 1.6일)로 전월(10.4일)보다 1.7일 적음
- 해수면온도('21년 1월 실황, '21년 2월 예측)
 - 1월 실황: 서해(4.4~ 8.8℃) / 남해(12.5~15.7℃) / 동해(11.9~15.0℃)
 - 2월 예측: 서해(2.0~ 7.0℃) / 남해(8.0~15.0℃) / 동해(10.0~14.0℃)
- 조석정보(고극조위, '21년 2월)
 - 인천: 28일(892cm) / 완도: 28일(388cm) / 포항: 1~3일(26cm)

해양안전정보

- 해양선박 사고(최근 5년간('16~'20년))
 - 전체 17,031척 중 2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884척(5.2%)으로 연평균 176.8척의 사고가 발생
 - ☞ 2월은 겨울철 조업 및 해양활동 감소로 인해 전체 사고건수는 적으나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상피해는 가장 많은 시기로, 기상악화로 인한 선체동요 및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선내 작업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어업정보

- 2월 어황 전망
 - 갈치, 전갱이는 평년비 순조 또는 평년수준, 고등어와 참조기는 평년수준, 멸치와 망치 고등어는 평년비 부진, 살오징어는 평년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협조: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1년 3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는 2021년 3월 2일에 발표됩니다.

해양기상정보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2월 유의파고(평균, 최고)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2월 순별 유의파고(평균, 최고) >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신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
*지점은 신규 통계 추가 지점임

○ 최근 5년간('16~'20년) 2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전 해상	1.0m(상순 1.1m / 중순 1.1m / 하순 0.9m)로 전월(1.1m)보다 0.1m 낮음
------	---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7m (전월과 비슷)	1.8m (전월과 비슷)
남 해	0.5m (전월과 비슷)	1.8m (전월과 비슷)
동 해	1.0m (전월보다 0.1m 낮음)	2.3m (전월보다 0.3m 낮음)
제주도	1.0m (전월과 비슷)	2.4m (전월보다 0.1m 낮음)

<순별 평균 유의파고>

- 2월 상순에 동해·제주도·서해남부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으며, 남해·서해중부 먼바다와 동해중부·제주도 앞바다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고 그 밖의 해상은 낮았음
- 중순에 동해·서해남부·남해서부·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고, 그 밖의 먼바다와 동해중부·제주도 앞바다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다른 해상은 낮았음
- 하순에 동해남부·제주도 먼바다에서 파고가 높았으며, 그 밖의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앞바다 전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앞바다			먼바다 (단위: m)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7	0.8	0.5	1.9	2.0	1.4
남 해	0.5	0.6	0.5	1.8	2.0	1.6
동 해	1.0	1.0	0.9	2.5	2.4	2.0
제주도	1.0	1.0	0.8	2.5	2.6	2.1

※ 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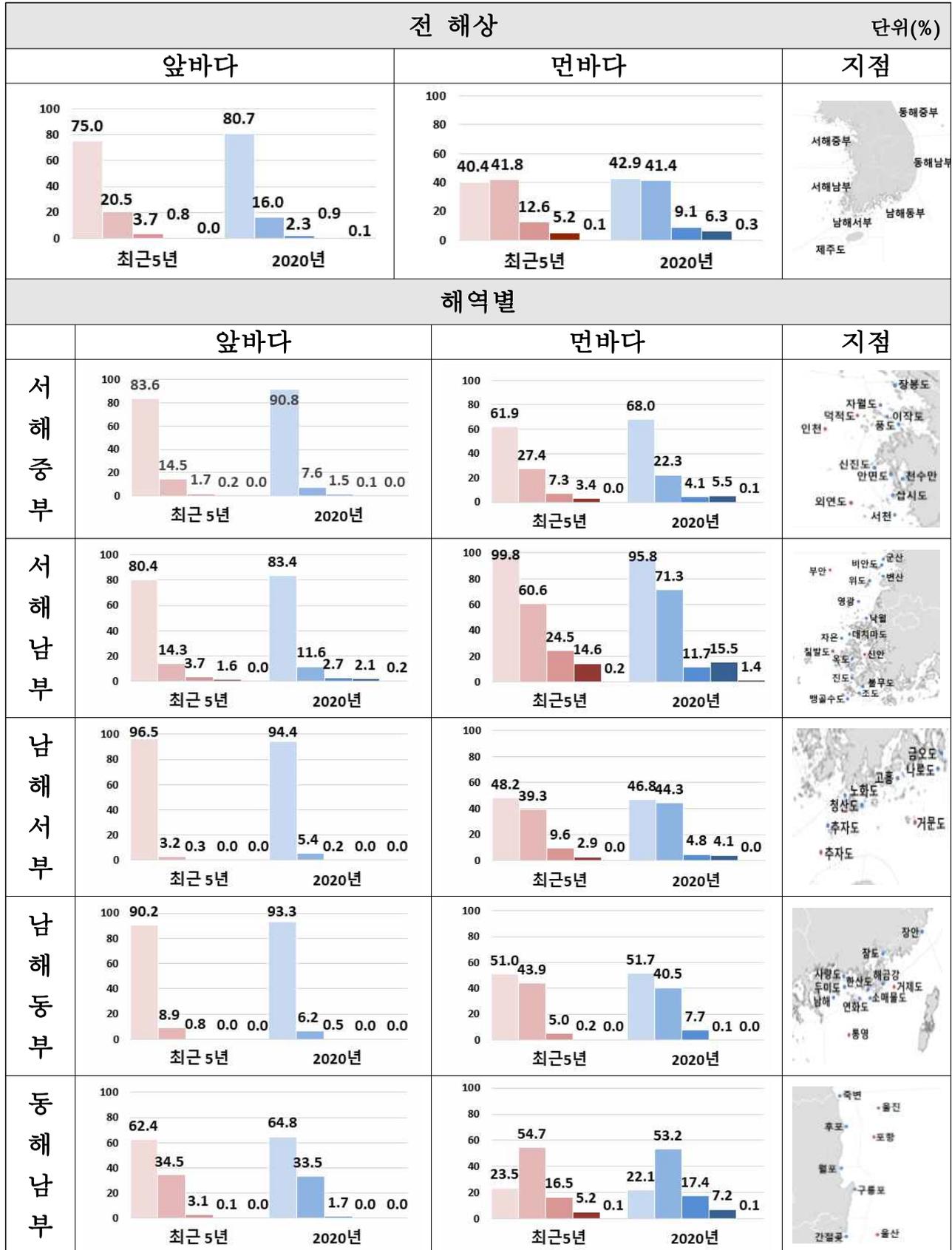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6~'20년) 2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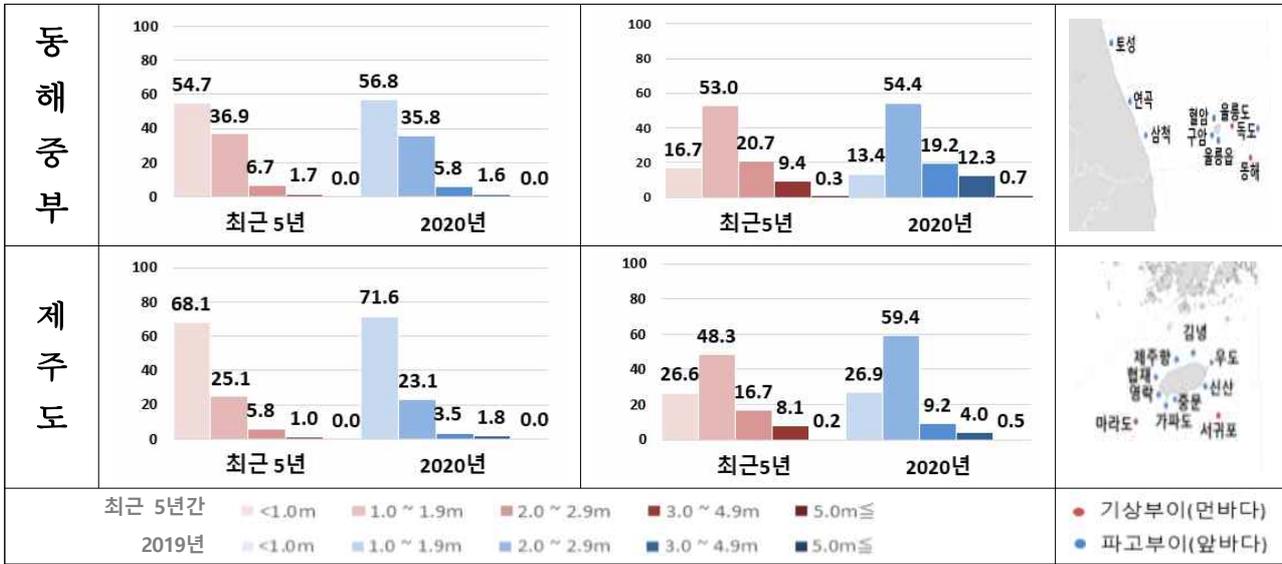
- 서 해: 앞바다 4.5m / 먼바다 5.7m
- 남 해: 앞바다 2.1m / 먼바다 4.8m
- 동 해: 앞바다 3.0m / 먼바다 5.5m
- 제주도: 앞바다 3.0m / 먼바다 5.2m

○ 관측 이래 2월 지점별 기상부이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단위:m)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칠발도	'05.2.1.	4.5 (5.5)	부안	'20.2.17.	4.5 (5.0)	칠발도	'97.2.16.	4.4 (5.7)
남 해	거제도	'10.2.11.	3.8 (5.0)	추자도	'20.2.17.	3.8 (4.7)	추자도	'16.2.14.	3.7 (4.4)
동 해	울릉도	'13.2.8.	4.6 (5.1)	울릉도	'20.2.17.	4.5 (5.6)	동해	'20.2.17.	4.4 (5.1)
제주도	마라도	'20.2.17.	4.4 (5.8)	마라도	'20.2.16.	3.9 (4.9)	마라도	'12.2.2.	3.6 (4.2)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2월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2월 전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 (앞바다) 1m미만 75.0%, 2m이상 4.5%
(먼바다) 1m미만 40.4%, 2m이상 17.8%
- 지난해 (앞바다) 1m미만 80.7%, 2m이상 3.3%
(먼바다) 1m미만 42.9%, 2m이상 15.7%

○ 최근 5년간('16~'20년) 2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해: (앞바다) 1m미만 82.1%, 2m이상 3.5% (먼바다) 1m미만 57.7%, 2m이상 13.9%
- 남해: (앞바다) 1m미만 92.8%, 2m이상 0.6% (먼바다) 1m미만 49.3%, 2m이상 9.7%
- 동해: (앞바다) 1m미만 57.0%, 2m이상 6.9% (먼바다) 1m미만 19.5%, 2m이상 26.8%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68.1%, 2m이상 6.7% (먼바다) 1m미만 26.6%, 2m이상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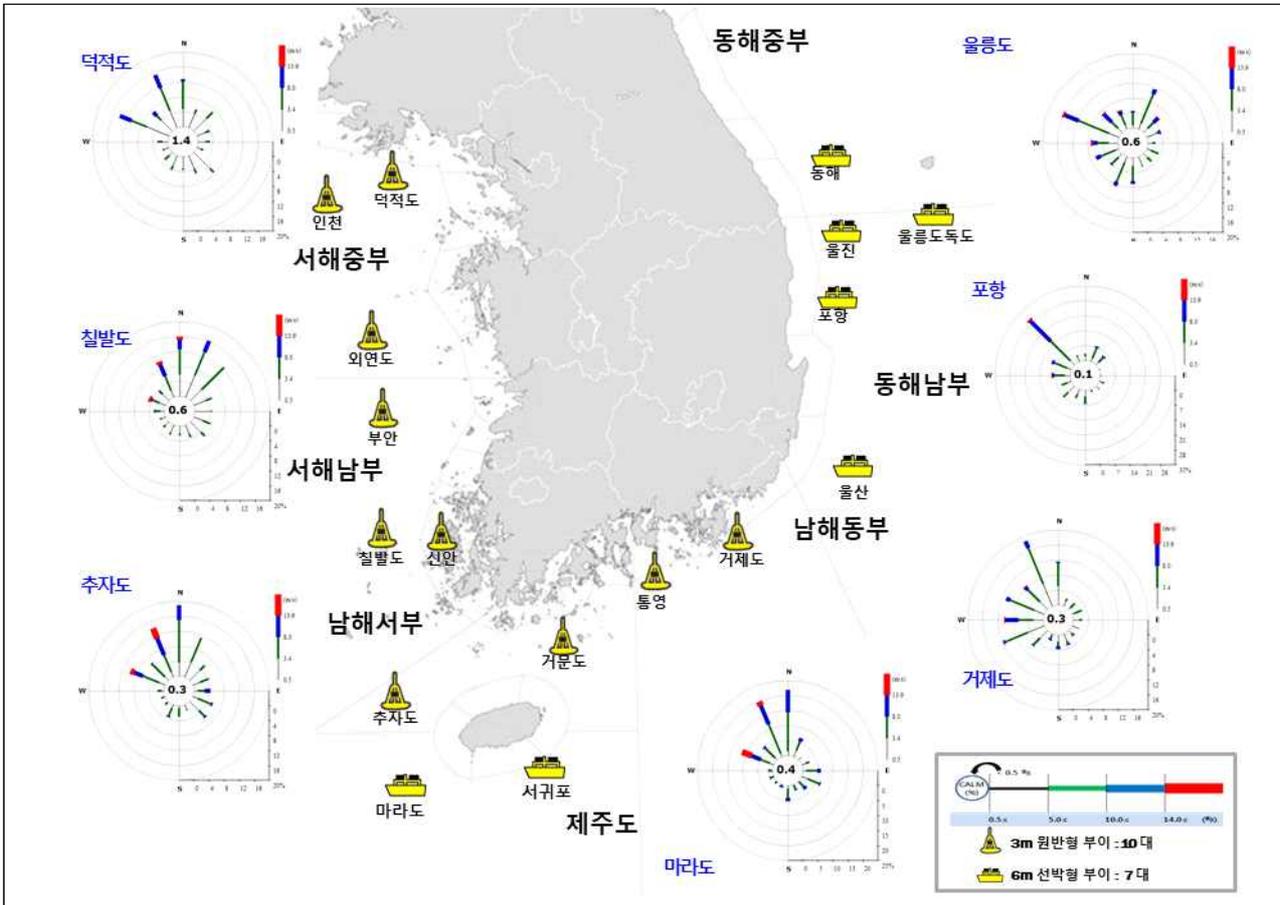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6~'20년) 2월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

- 최근 5년: (1m미만) 남해서부앞바다(96.5%) / (2.0m이상) 서해남부 먼바다(39.4%)
- 지난해: (1m미만) 서해중부앞바다(90.8%) / (2.0m이상) 동해중부 먼바다(32.2%)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신안,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위도, 불무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나로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사랑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울릉서부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영락

[참고] *지점은 최근 5년 통계 추가지점이며, __지점은 지난해('20년) 통계 추가지점임

■ 지난해('20년)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 '20년 2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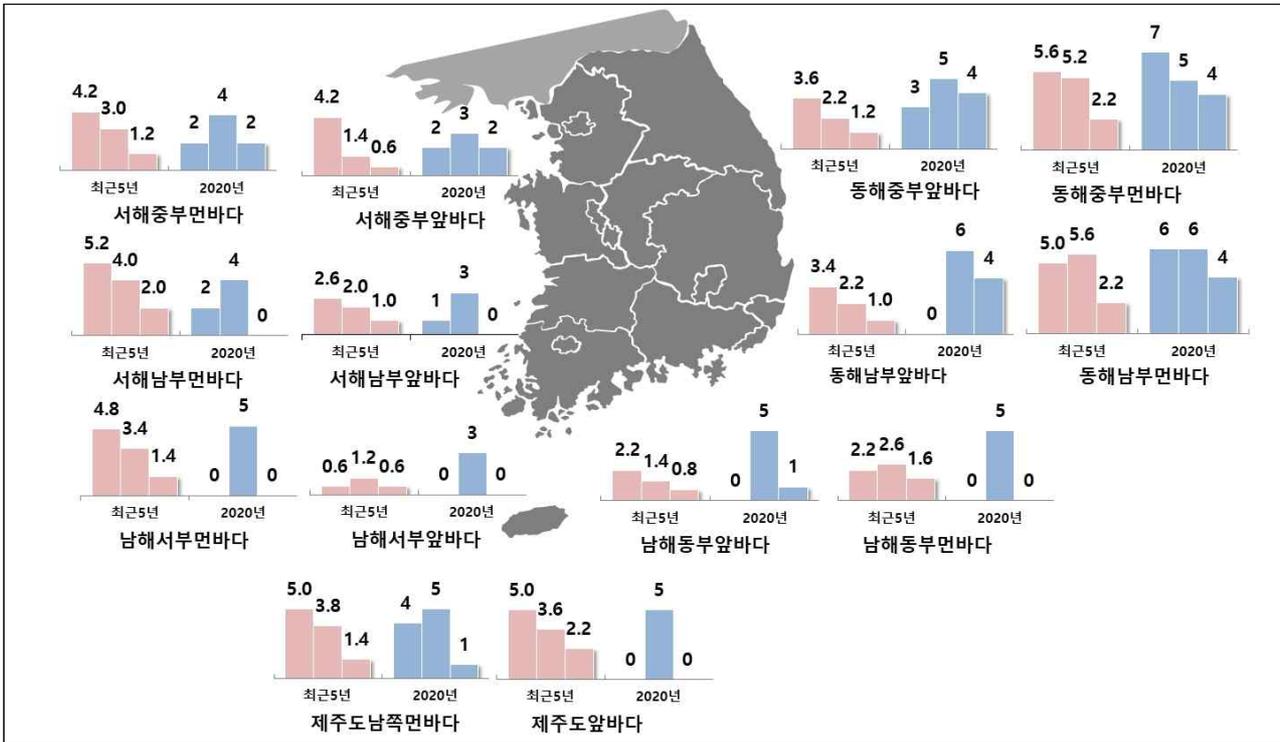
○ 지난해('20년) 2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W~N	0.7	50.4	37.5	11.1	0.3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NW~NE	0.9	50.5	37.4	9.7	1.6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NW~N	0.2	27.9	55.0	14.0	3.0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SW~NW	0.5	34.3	51.7	11.9	1.6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NW~NE	0.6	28.5	52.2	17.8	1.0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NW	0.1	32.9	51.1	14.8	1.0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남쪽	NW~N	0.3	18.9	49.5	27.2	4.3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0.5	34.8	47.8	15.2	1.8	

- 주풍계: 대부분의 해상에서 북서~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음
- 전 해상 풍속: 5.0m/s 미만 35.2% / 5.0 ~ 9.9m/s 47.8% / 10.0m/s 이상 17.0%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 5.0m/s 미만: 서해남부(51.3%) · 10.0m/s 이상: 제주도남쪽(31.5%)

☞ 지난해('20년) 2월 해양기상부이 지점별 해상풍은 부록 1. 참고

■ 최근 5년간('16~'20년) 및 지난해('20년) 2월 풍랑특보 일수



<최근 5년간('16~'20년) 및 '20년 2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2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5년: 8.7일, 전월(10.4일)보다 1.7일 적음
- 지난해: 8.0일, 전월(9.4일)보다 1.4일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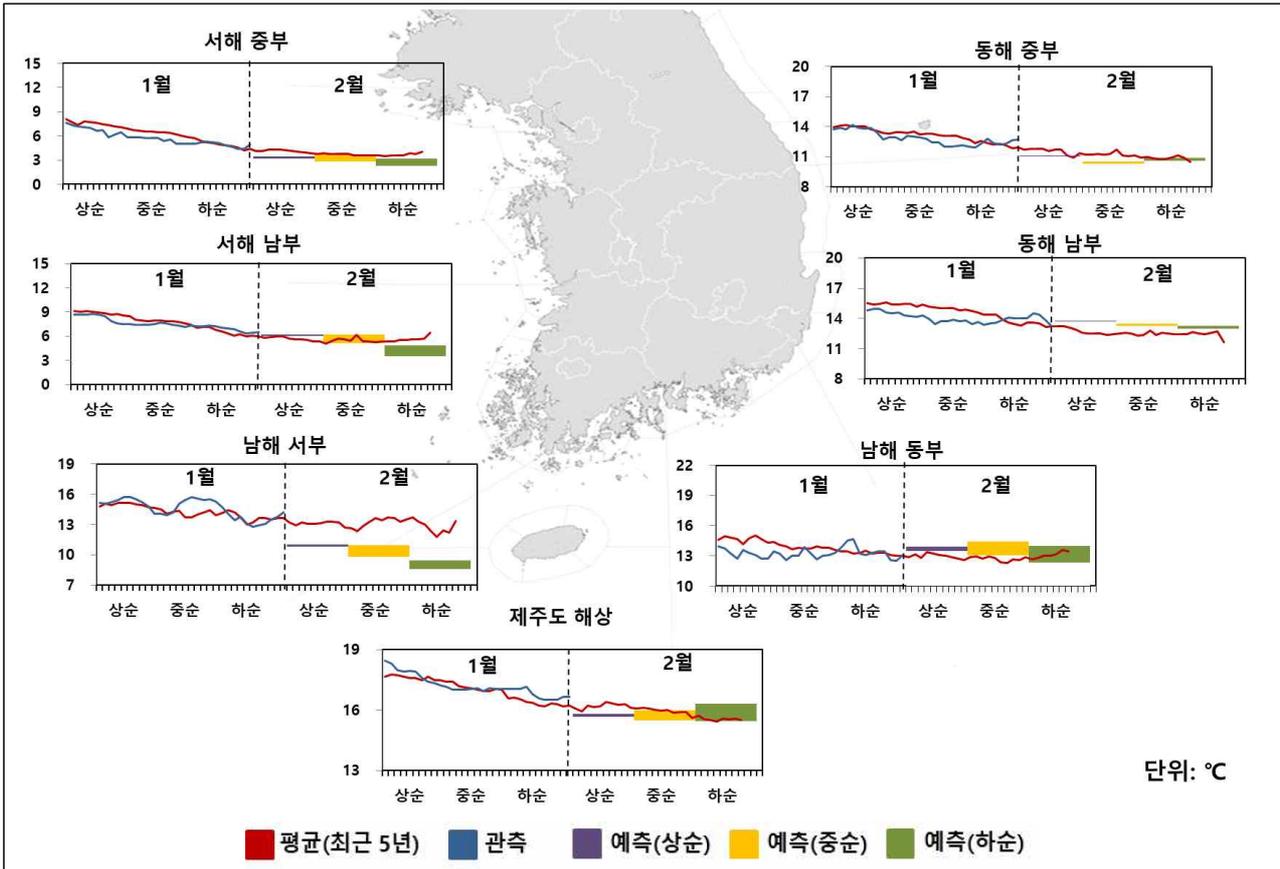
○ 2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 상순 3.5일 / 중순 3.6일 / 하순 1.6일
- 지난해: 상순 1.9일 / 중순 4.6일 / 하순 1.6일

○ 2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5년: 제주도 앞바다(25.2일) / 서해중부앞바다(6.6일)
- 지난해: 동해(중부,남부)먼바다(16.0일) / 남해서부앞바다(3.0일)

■ 해수면온도 지난달(1월) 관측 및 2월 예측



< 해수면온도 최근 5년 평균, 21년 1월 관측값 및 21년 2월 예측 >

- ☞ 해수면온도는 해양기상부이에서 관측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최근 5년)'은 최근 5년간('16~'20년) 1월 관측값의 평균, '관측'은 지난달('21년 1월)의 기상부이 관측값임
 - 관측지점: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칠발도, 부안*)
 남해서부(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거제도, 통영*), 제주도(마라도, 서귀포*)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울산*, 울진*)
- ☞ 해수면온도 예측정보는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예측값을 사용하며,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지점은 신규 통계 추가지점임

○ 지난달 ('21년 1월) 해역별 해수면 온도 특성

해역	1월 해수면온도(°C) (최근 5년 평균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5.8 ~ 7.6 (-0.7)	5.0 ~ 5.8 (-0.9)	4.4 ~ 5.3 (-0.1)
서해남부	7.5 ~ 8.8 (-0.6)	7.2 ~ 7.7 (-0.4)	6.4 ~ 7.3 (+0.4)
동해중부	12.7 ~ 14.2 (-0.2)	12.0 ~ 13.1 (-0.7)	11.9 ~ 12.8 (-0.1)
동해남부	14.2 ~ 15.0 (-0.9)	13.4 ~ 13.9 (-1.2)	13.2 ~ 14.5 (+0.3)
남해서부	14.1 ~ 15.7 (+0.2)	14.0 ~ 15.7 (+0.9)	12.8 ~ 14.7 (-0.1)
남해동부	12.7 ~ 14.0 (-1.4)	12.6 ~ 13.9 (-0.7)	12.5 ~ 14.7 (+0.1)
제주도남쪽	17.3 ~ 18.5 (+0.2)	17.0 ~ 17.2 (-0.1)	16.5 ~ 17.2 (+0.4)

○ 최근 5년간('16~'20년) 2월 해수면온도 평균 및 '21년 2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예측

(과거) 최근 5년간 2월 해수면온도 평균		(예측) '21년 2월 해수면온도	
관측지점	범위(°C)	해역	범위(°C)
덕적도, 외연도, 인천	3.5 ~ 4.4	서해중부	2 ~ 4
칠발도, 부안	5.1 ~ 6.5	서해남부	3 ~ 7
울릉도, 동해	10.5 ~ 11.8	동해중부	10 ~ 11
포항, 울산, 울진	11.6 ~ 13.2	동해남부	13 ~ 14
거문도, 추자도	11.8 ~ 13.7	남해서부	8 ~ 13
거제도, 통영	11.4 ~ 13.6	남해동부	12 ~ 15
마라도, 서귀포	15.5 ~ 16.4	제주도남쪽	15 ~ 17

▣ 해양기상정보포털 맞춤형서비스(어업) 장기수온 예측정보 확인하세요!

○ 기상청은 수요자가 원하는 해양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항만, 항로, 레저, 어업, 안전, 안보

○ 기존의 어업 분야에서는 관측지점의 관측정보와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kma.go.kr) > 좌측 맞춤형서비스 어업 > 기상부이, 파고부이, 국립수산과학원 클릭 > 지점 선택시 관측 및 예측정보 표출

- 기상부이(21개)와 파고부이(63개) 지점에 대한 관측과 예측정보

- 국립수산과학원(51개) 지점의 관측실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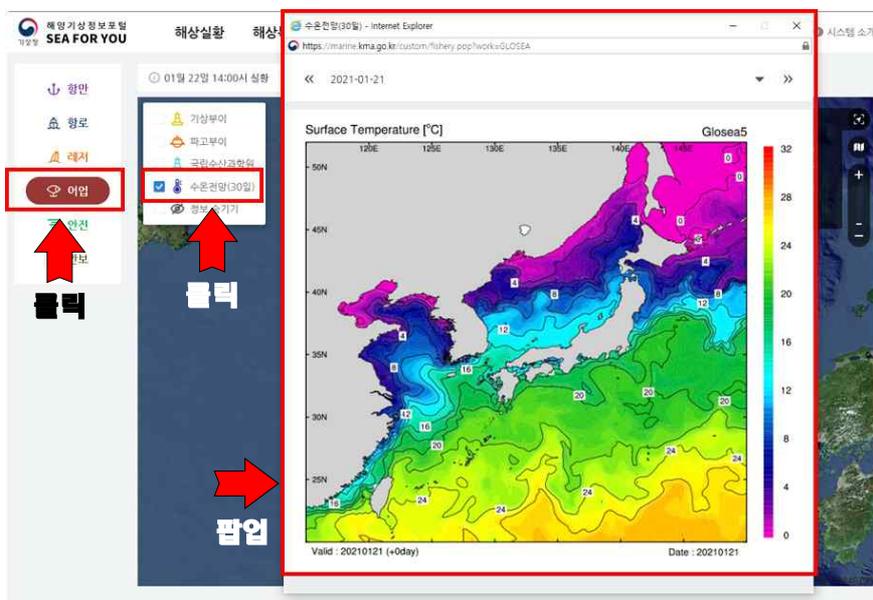
○ 동아시아 지역의 조업, 양식장 지원을 위해 동아시아 영역에 대한 30일 표층 수온 예상도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kma.go.kr) > 좌측 맞춤형서비스 어업 > 수온전망(30일) 클릭 > 장기 수온예상도 팝업

- 모델/제공 주기: 전지구 기후예측시스템(GloSea5)/1일 1회

- 예측 기간/간격: 현재(+0일) ~ +30일 예측/1일

※ 활용분야: 양식업, 연근해 조업선박, 원해 조업선박의 수온변화에 따른 조업환경변화 예측



<장기 수온예상도 확인 방법>

조석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2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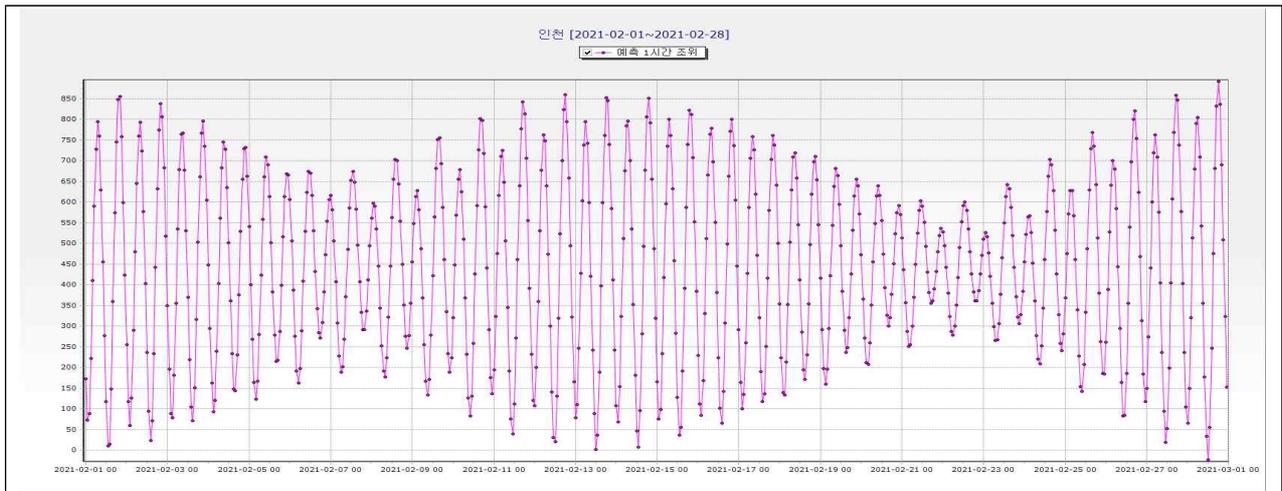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2월 28일에 892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2월 28일에 388cm, 동해안의 포항은 2월 1, 2, 3일에 26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2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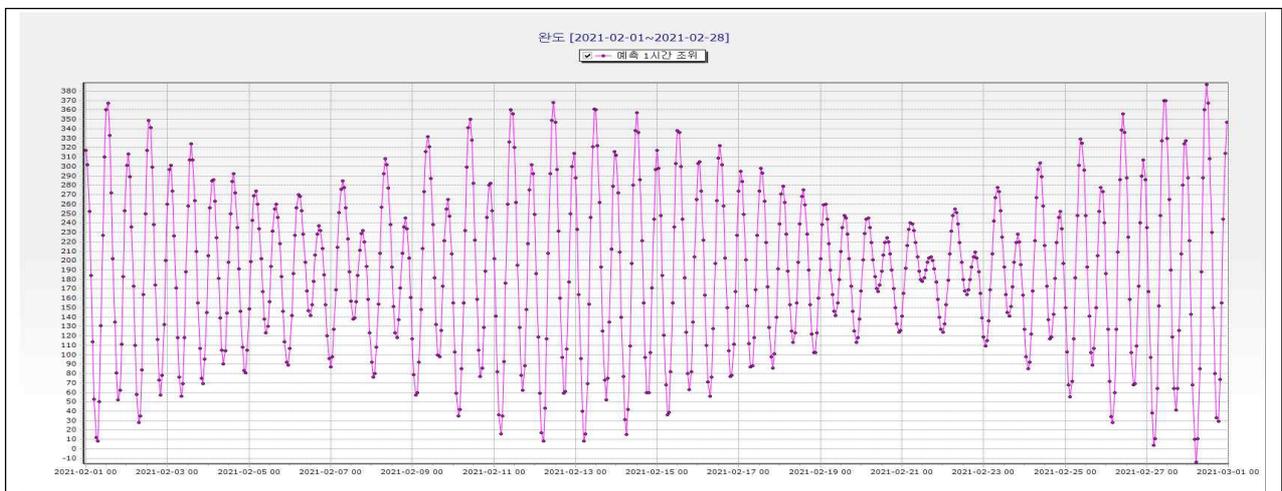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망 2.1)		대조기(삭 2.12)		대조기(망 2.27)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발생시각	고극조위 (cm)
서해안	인 천	19:34	866	17:51	862	17:24	866
	안 흥	18:31	653	16:50	644	16:23	652
	군 산	17:49	669	16:07	664	15:40	665
	목 포	17:01	443	15:10	451	14:40	445
남해안	제 주	13:14	261	11:34	260	11:05	264
	완 도	12:39	370	10:57	368	10:29	376
	마 산	11:26	182	09:50	189	09:20	188
	부 산	10:53	119	09:15	114	08:46	116
동해안	포 항	05:00	19	02:59	17	02:33	14
	속 초	04:46	27	02:48	27	02:27	27
	울릉도	04:12	13	02:13	14	01:49	11

☞ 2021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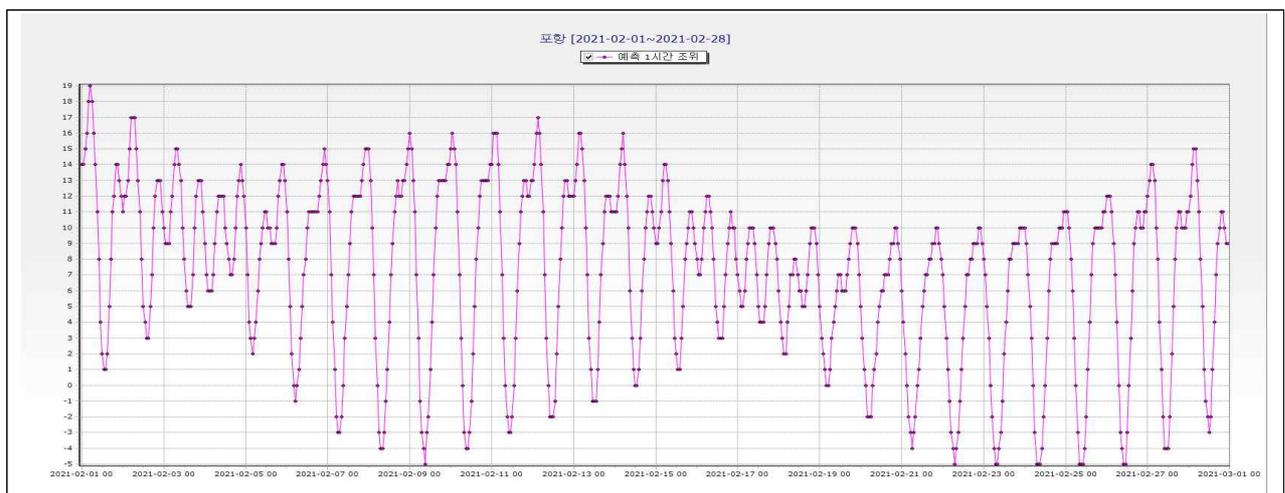
2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1년 2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1년 2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1년 2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해난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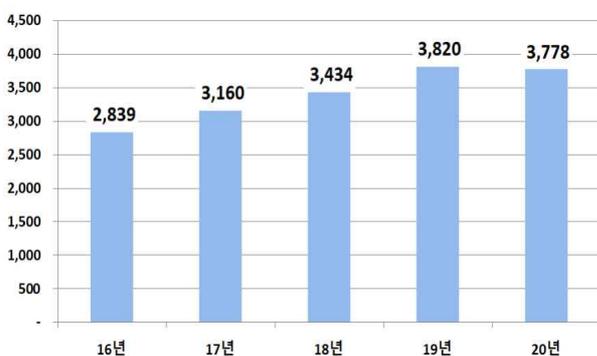
제공: 해양경찰청

▣ 최근 5년간('16~'20년) 해상조난사고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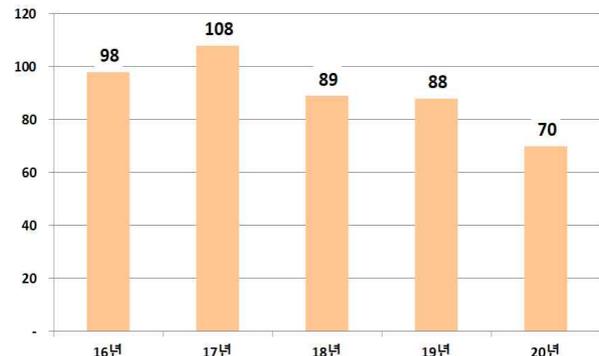
최근 5년간 17,031척(연평균 3,406.2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하였고, 발생인원 98,996명 중 453명(사망 295명, 실종 15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

구 분	발 생		구 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 망	실 종
계	17,031	98,996	16,730	98,543	453	295	158
2020년	3,778	21,497	3,710	21,427	70	50	20
2019년	3,820	20,422	3,758	20,334	88	58	30
2018년	3,434	19,596	3,385	19,507	89	56	33
2017년	3,160	17,336	3,102	17,228	108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98	48	50

※2020년 해상조난사고 현황은 잠정 통계임



< 사고발생 현황 >



< 인명피해 현황 >

☞ 2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 2. 참고

■ 해상조난사고 분석

- (총괄)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사고 17,031척 중 2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884척(5.2%)으로 연 평균 176.8척의 사고가 발생
 - * 최근 5년간 2월에 발생한 인명피해(사망·실종자)는 45명
 - (선종별) 어선 59.7%(528척), 레저선박 10.5%(93척), 예부선 7.2%(64척) 順으로 발생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를 제외하고 침수 9.3%(82척), 충돌 7.8%(69척), 좌초·주 5%(44척) 順으로 발생
 - * 기관손상, 추진기손상, 키 손상, 운항저해, 부유물감김, 방향상실 등
 - (원인별)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38.2%(338척), 운항부주의 33.8%(299척), 관리소홀 9.6%(85척) 順으로 발생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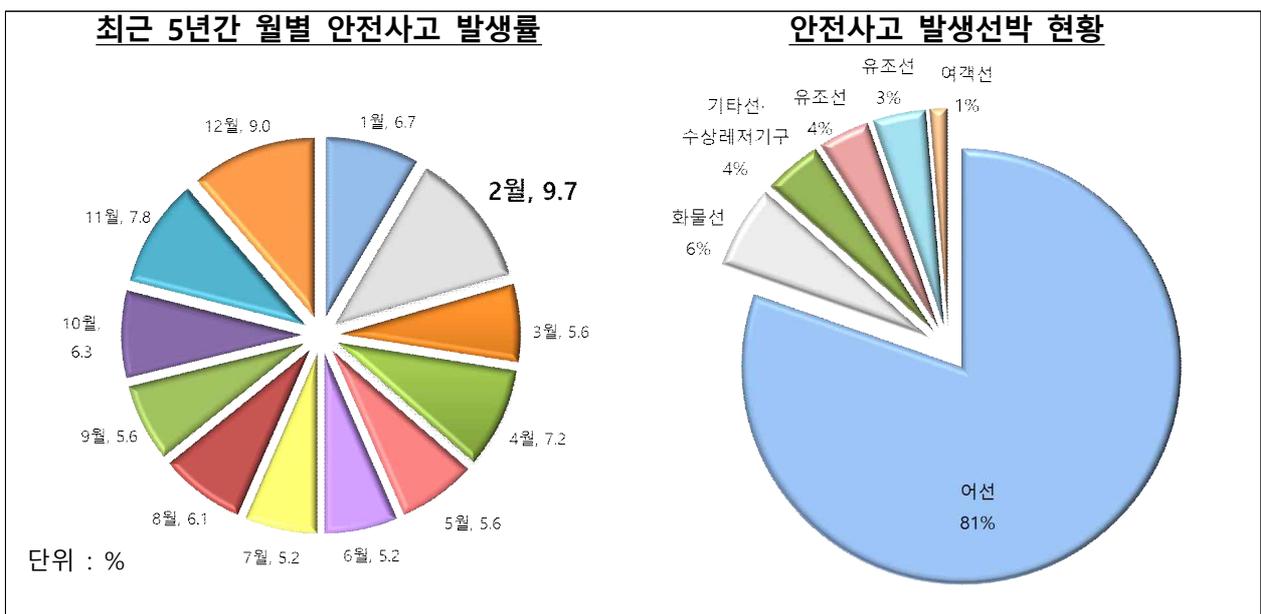
□ **[2월] 겨울철 조업 및 해양활동 감소로 인해 전체 사고건수는 적으나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상피해는 가장 많은 시기**

- 최근 5년간(15~19년) 2월 중 총 640건(연평균 128건)의 해양사고 발생, 그 중 안전사고는 62건으로 9.7%를 차지하며, 타월(6.4%) 대비 발생률 52% 증가

유형	기관 손상	안전 저해	안전 사고	총돌	화재 폭발	좌초	전복	침몰	접촉	해양 오염	기타
건수	182	101	62	54	33	31	16	12	10	4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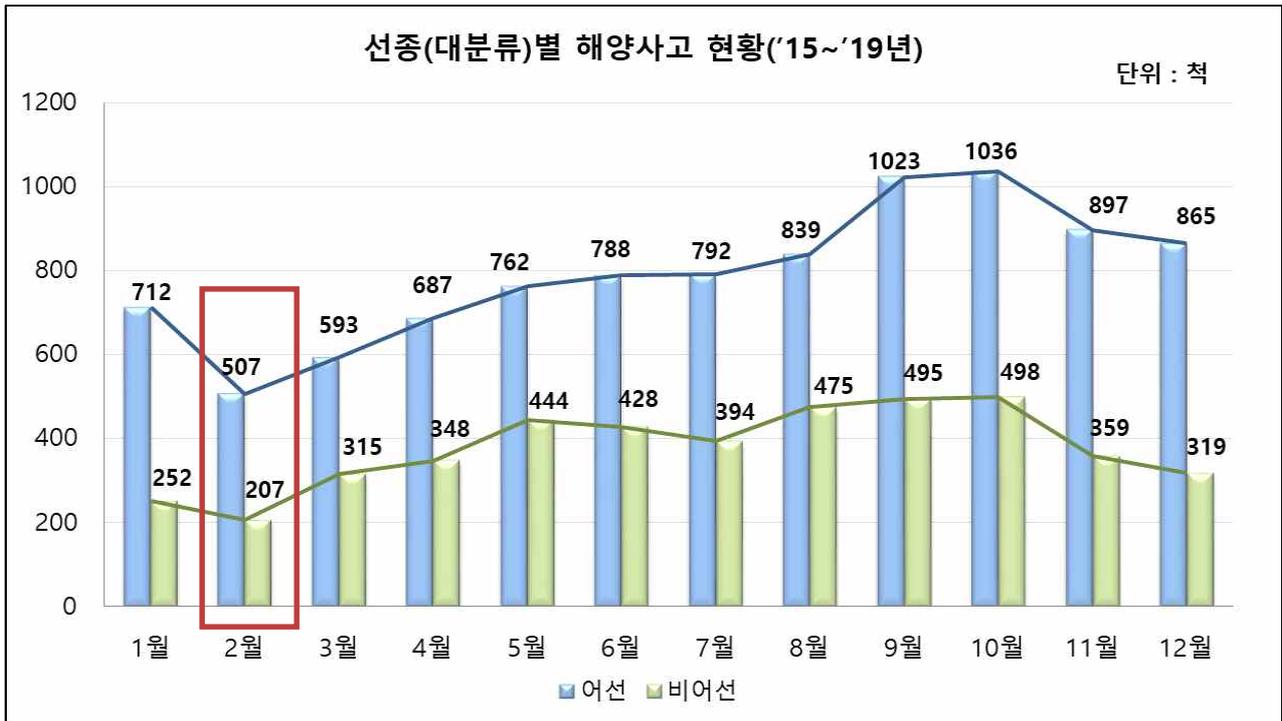
□ **기상악화로 인한 선체동요 및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선내 작업안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

- (사고피해) 최근 5년간 2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총 69명의 인명피해 발생(사망 14명, 실종 9명, 부상 46명)
- (주요원인) 기상악화·선체동요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 선내 미끄러짐·구조물 타격, 양망기 신체 끼임 등 작업 부주의에 기인
- (피해예방) 작업 중 구명조끼·안전줄 등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 철저히 준수, 특히 양망기·사이드드럼 이용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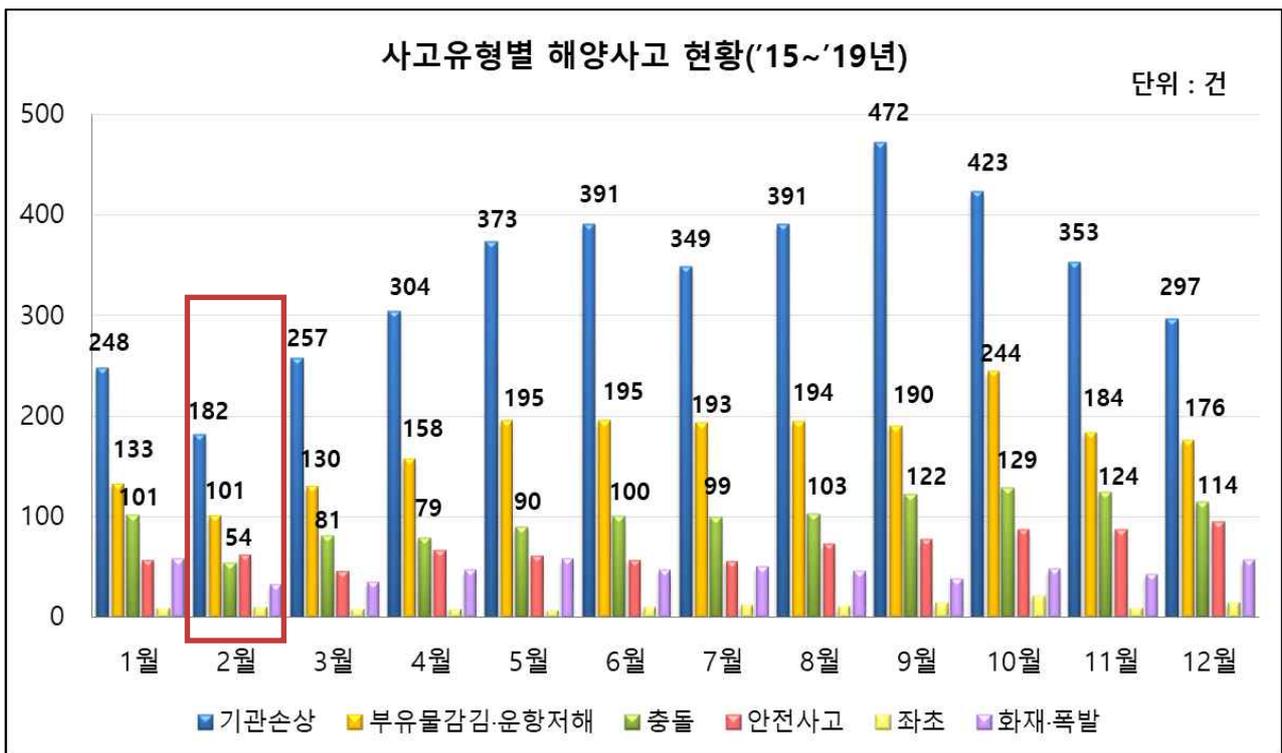


■ 최근 5년간('15~'19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2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 2. 참고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2월 어황정보

○ 지난달(1월) 어황

- 1월(월보기간: 12.20~1.16)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갈치, 전갱이, 참조기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고등어, 망치고등어, 멸치, 살오징어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 2월 주요 어망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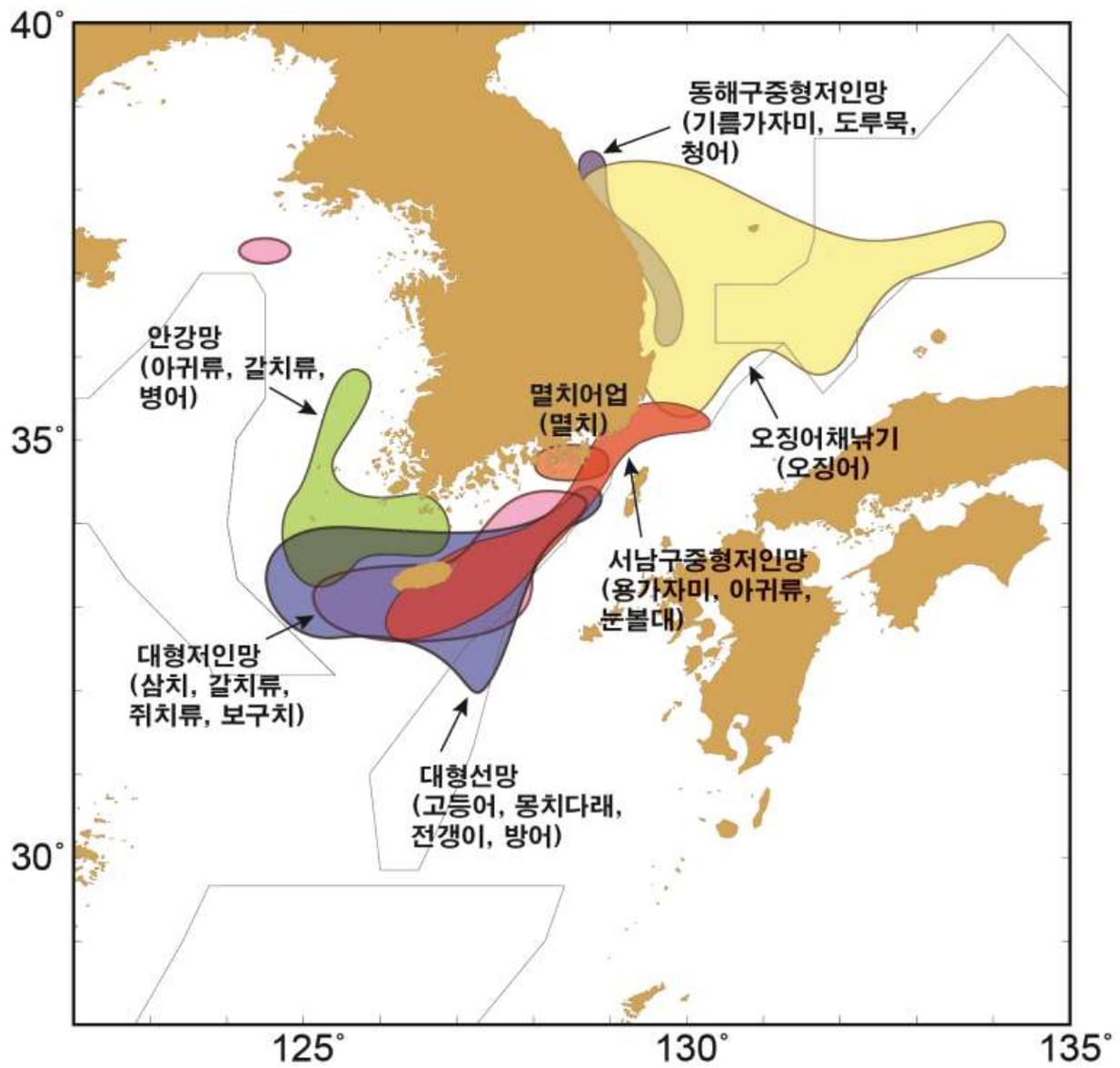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전갱이, 망치고등어, 방어, 뽕치다래 등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동해 남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다. 2월의 전체 어황은 평년수준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권현망어업: 수온하강에 따라 근해로 이동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을 이어가겠다. 연조업척수 및 단위노력당어획량은 낮은 수준으로 2월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근해안강망어업: 주요 어종들의 남하(월동)회유에 따라 제주 북서부 근해에서 중심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아귀류, 갈치, 병어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다. 연조업척수는 평년수준이나 단위노력당어획량은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대비 순조로울것으로 전망됨
- 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삼치, 갈치, 보구치 등을 대상으로 제주 서부 근해~제주남부, 남해 중부해역에 걸쳐 조업하겠음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서부 근해~제주 남부, 남해 해역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지겠고, 보구치, 갑오징어류, 아귀류, 가자미류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제주 남서부 근해~부산, 울산 근해에서 용가자미, 아귀류, 눈볼대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근해에서 기름가자미, 도루묵, 청어를 대

상으로 조업하겠음

- 단위노력당어획량은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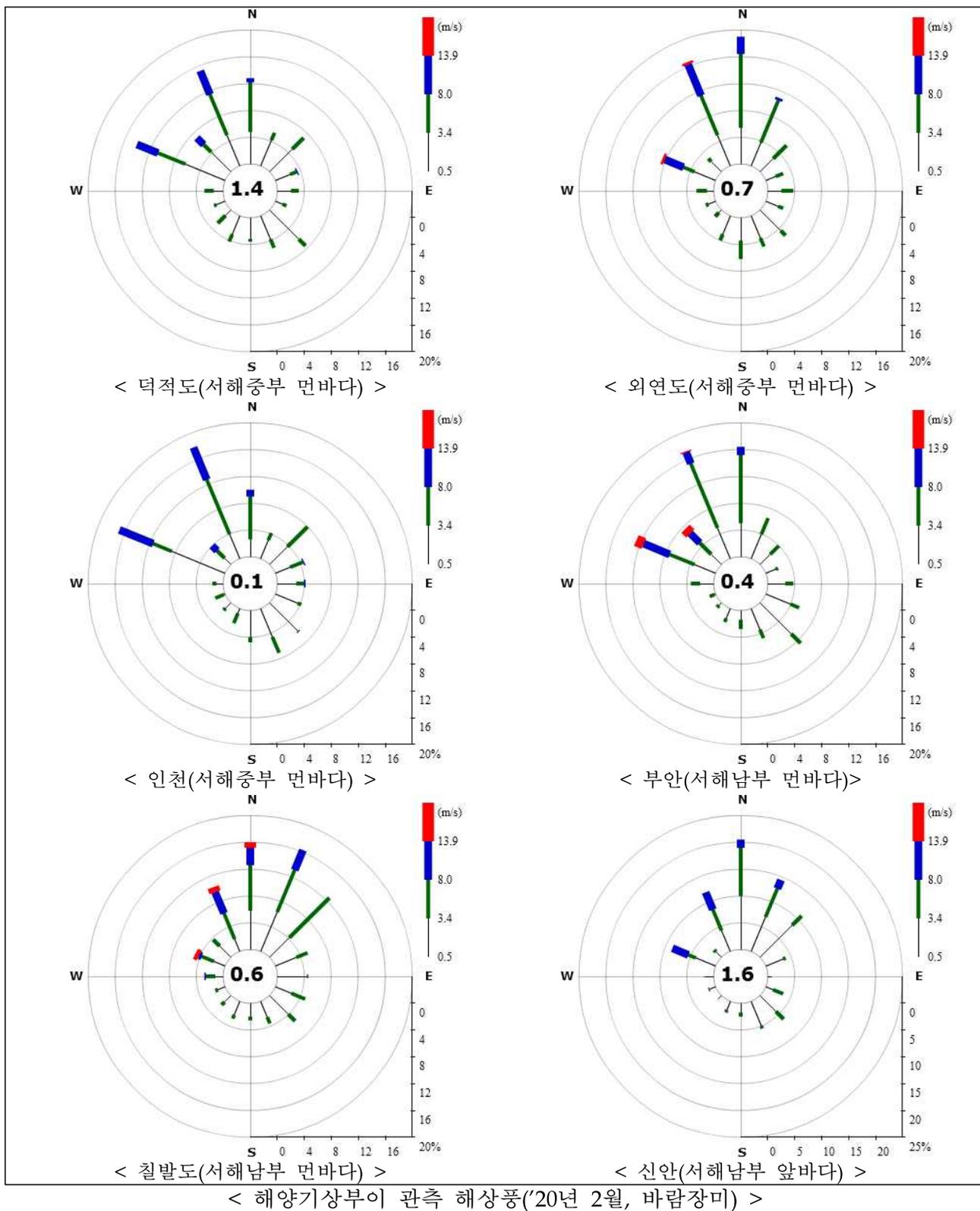
고 등 어	주어기(8월~이듬해1월)이나 기상악화 등 조업일수 부족으로 평년 절반 수준의 어황을 기록하고 있다. 2월에 들면 계절적인 수온 하강에 따라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동해 남부해역~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으로 전망된다.
전갱이	산란시기(1~4월 *산란장:동중국해)로 남하회유가 활발하겠고, 제주 주변해역과 남해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8월 이후 평년대비 순조로운 어황을 이어가고 있어 어군 밀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살오징어	겨울산란군의 남하회유가 이어지며, 이때 산란회유를 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동해 남부해역(경북/울산 근해)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겠다. 동해 남부해역의 겨울철 수온 변동성에 따라 어황 또한 큰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대비 동해수온은 상승하였으나, 최근 어군밀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멸치	겨울철 연안 수온하강에 따라 외해로 이동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남해 중부해역(남해도와 거제도 주변)을 중심으로 권현망어업이 조업을 이어나가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으로 전망된다.
갈치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겠다. 주어기(8-12월)가 지나 전월보다 어획량은 감소하겠으나,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기	월동을 위해 남하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주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고, 특히 제주 근해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다. 주어기(9-12월)를 지나면서 전월대비 어획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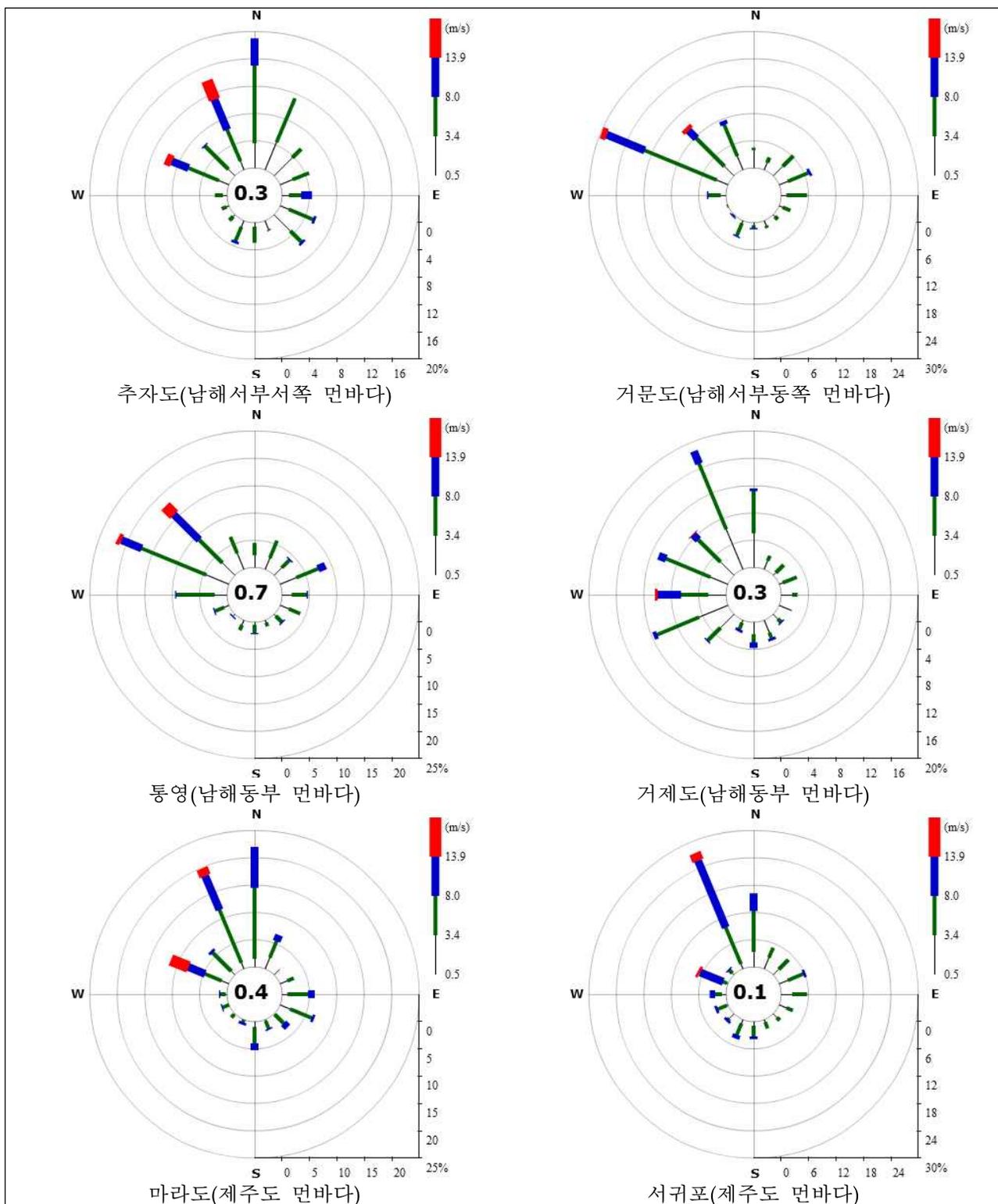
< 2021년 2월 어업별 예상어장도 >

【부록 1】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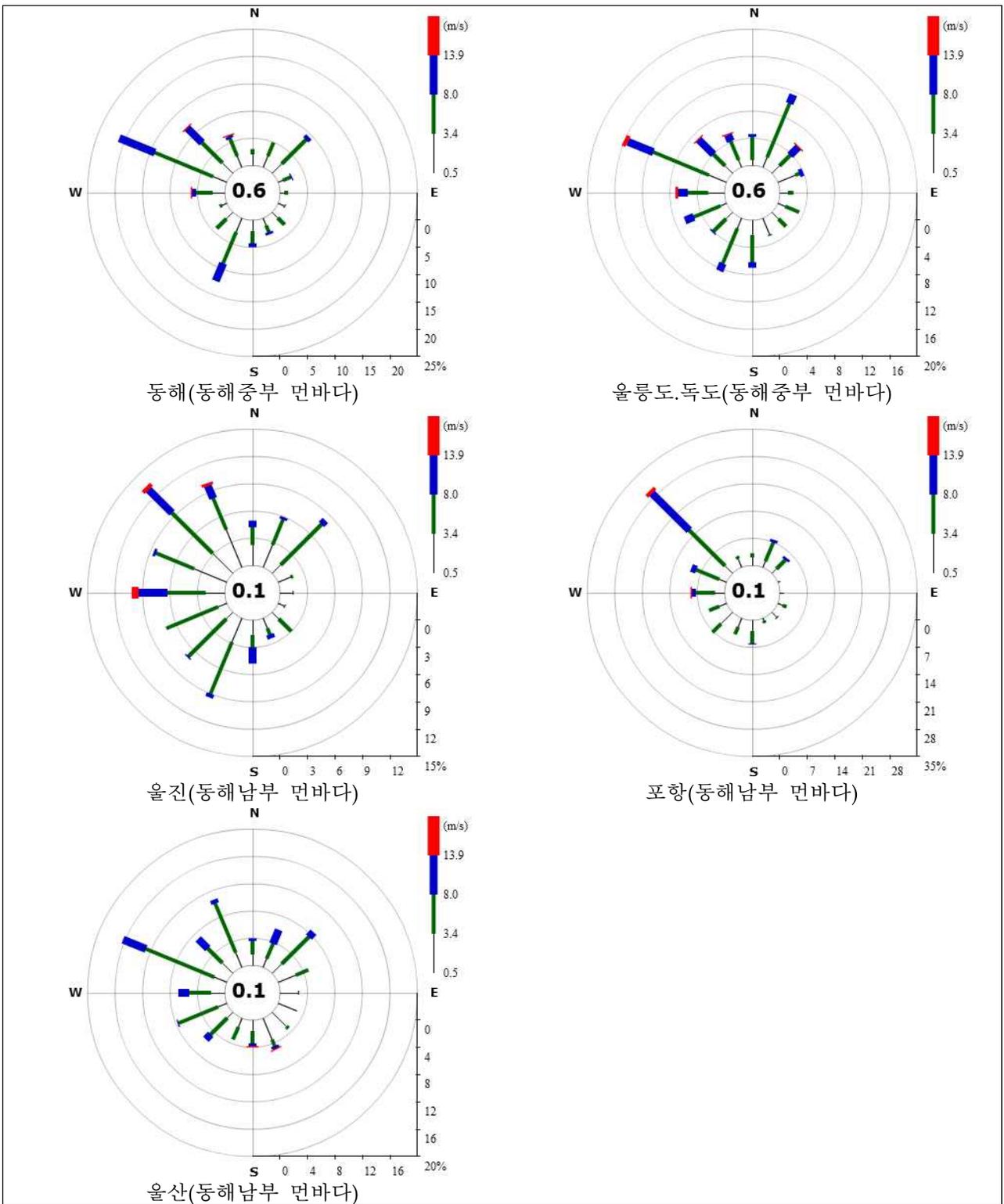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제주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0년 2월, 바람장미) >

2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20년 2월, 바람장미) >

【부록 2】

주요 해양 안전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어선 A호의 선원부상사건

사건명		어선 A호의 선원부상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39톤, 길이 21.2미터,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2020. 2. 27. 07:30경
	장소	통영시 옥지면 소재 옥지도 남방 약 39마일 해상
	피해	A호 선원 1명 부상
	상황	조업지에 도착한 후 악천후 때문에 대기하다가 기상상황이 조금 나아져 조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중, 순간적으로 강한 파도가 A호를 덮쳤고 파도에 휩쓸린 선원이 갑판 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음
날씨	흐린 날씨, 북동풍 초속 10~12m, 파고 약 1.5~2m, 시정 약 2마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이 파도에 휩쓸려 갑판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악천후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어선의 경우 악천후에서 선체가 비교적 많이 흔들리고,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형 어선 선원들은 기상상황이 나쁠 때 신체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어선 선장은 조업을 시작하기 전 기상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어선 B호 선원사망사건

사건명		어선 B호 선원사망사건
사건 개요	선박	B호: 어선, 7.31톤, 길이 14.05미터,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장소	2020. 1. 21. 10:0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목덕도 서방 약 17해리 해상
	피해	B호 선원 1명 사망
	상황	선박에 설치된 사이드드럼을 이용하여 양망작업을 하던 도중, 선원이 회전하는 사이드드럼에 감긴 로프를 풀어내기 위해 로프를 직접 손으로 잡고 벗겨내다 로프를 잡고 있던 왼손이 로프와 함께 사이드드럼에 달려 들어감
	날씨	맑은 날씨, 북동풍 초속 4~6m, 파고 약 1m, 시정 약 3마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원이 사이드드럼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드럼에 감긴 로프를 직접 손으로 잡고 벗겨내는 등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이 사고의 주원인이나, 선장이 이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바로 잡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에서 양망기, 사이드드럼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비로,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옷이나 신체 일부가 회전체에 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특히, 사이드드럼에 감긴 로프를 풀어내는 작업 시 드럼에 감긴 로프를 직접 손으로 잡고 벗겨내서는 안됨 ○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 사이드드럼과 같은 위험한 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선장은 선원이 조업편의상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관행을 바로잡아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사고 상황 재연		